

GS건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1공구 '안전'으로 '재해'라는 암반을 부순다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1공구. 이곳은 연장 155m의 터널을 뚫는 현장으로, 시공 초기인 현재는 발파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발파작업은 다량의 폭약이 수시로 사용되는 만큼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공정 중 하나다. 하지만 이곳 현장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위험공정이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 그만큼 안전관리가 철저하다는 얘기다.

수차레에 걸친 시험발파를 통해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한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업 시 대응절차에 나서는 근로자들의 모습도 일사불란하기 그지없다.

'안전'으로 터널공사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그들만의 특별한 안전활동을 살펴봤다.





안전은 정리에서 시작된다

이곳 현장이 주는 첫 느낌은 '깨끗하다'는 것이다. 이곳은 건설업에서는 드물게 '3정5S'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리, 정돈, 청결 등을 강조하는 '3정5S' 운동은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펼치는 운동이다.

이곳이 이 운동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이곳 총괄 책임자인 민병혁 소장의 영향이 컸다. 민 소장은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깨끗하고 정돈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근로자들이 보다 더 작업에 집중을 하게 돼 불안정한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민 소장의 방침 하에 이곳 현장의 임직원들은 일과 전후와 공정의 각 단계사이에 철저히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있다.

매너리즘을 조심하라

반복되는 공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너리즘을 막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 익숙해 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매월 말경이면 내달 점검 일정이 발표되는데 이때 일일 SEQ(안전, 환경, 품질) 점검자가 지정된다. 안전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이곳의 풍토. 일일 SEQ점검자는 한치의 빈틈 없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 때 점검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염두에 두며 확인해야 하는 지를 세세히 적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 직원이 항상 안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하는 '안전'을 하라

이곳 안전활동의 특이점 중 하나는 안전활동의 주체가 '협력사'라는 것이다. 협력사의 직원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내놓는 등 현장의 안전활동을 최일선에서 이끌고 있다. 대신 본사는 협력사들에게 자사의 우수한 안전기법을 전수해 주고, 이들이 올바르게 안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위험성 평가'다. 이곳의 위험성 평가는 2주 단위로 반복해 실시되고 있다. 먼저 1주차에는 협력업체들이 현장을 세밀히 점검한다. 그리고 2주차에는 이 위험성 평가 결과를 임직원 모두가 점검 과정에 대한 조언을 하는 한편 협력




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이곳은 안전에 대한 협력사의 관심을 높이고, 또 협력사의 안전관리역량도 향상시키고 있다.

멈춤 없는 안전 열정

이곳은 이미 탄실한 안전관리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보다 굳건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RFID' 설치사업이다. 이는 각 근로자들에게 전자인식장치가 부착된 센서나 출입증 등을 나눠준 뒤 이를 추적해 근로자들의 활동 위치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발파 등의 위험 공정이 많은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위험 요소 근처에 접근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인적원인에 의한 인명손실을 막기위한 방법이다. 1억여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는 소리도 있지만 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는 것이 이곳의 생각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도 이곳이 얼마나 안전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안전을 향한 이곳의 열정이 계속되는 한 무재해로 준공을 하겠다는 이곳의 목표도 분명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이 건설의 모든 것

우수한 건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쾌적한 환경' 아래 '건실한 사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빠어난 품질'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공과 환경, 품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3가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생각하고 환경을 대하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또 안전을 우선시하여 사공을 하면 건실한 사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리되면 당연히 좋은 품질도 확보할 수 있겠지요.

우수한 현장 또 최고의 품질을 원한다면 안전부터 하십시오. 안전이 곧 건설의 모든 것입니다.

민 병혁 소장



왼쪽부터 **윤형진** 대리

우리 현장의 안전은 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오윤수 안전팀장

말로 하는 안전이 아닌 발로 뛰고 실천하는 안전을 하겠습니다.

임민수 대리

나무가 아픈 숲을 내다보는 계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습니다.